

콜럼버스 교구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



본당주소: Holy Family Church 584 W. Broad St. Columbus, OH 43215

홈페이지: <http://www.kcolumbus.org>

주임신부: 김충귀 베드로 신부 (badakck@yahoo.co.kr, 614-961-0980)

- * 주일미사 :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* 평일미사 : 매주 금요일 오후 5시30분
- * 성시간 : 매월 첫째 금요일 미사 후 * 유아세례 :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
- * 병자봉성체 :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

본당 소식

- ◆ 9월은 한국 순교자 성월입니다.
한국 순교 성인들의 신앙을 본받고, 우리의 작은 신앙들이 그 분들의 신앙을 본 받을 수 있는 복된 달 되시기 바랍니다.
- ◆ 추석 합동 위령미사 안내
 - 일시: 10/4 (일) 오전 10시 30분
 - 장소: Scioto Park
- ◆ 가톨릭 신문 구독 신청안내
 - 구독 신청서를 미제출하신 분들은 다음 주 일요일 (20일) 미사 후 까지 김상욱 안토니오 형제님께 제출 바랍니다.
- ◆ 성가대 신임단장 안내
 - 윤해경(엘리사벳) 자매님께서 신임 단장으로 임명 되셨습니다. 지금까지 봉사 해 주신 박영주(마리아)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.
- ◆ 학생 복사단 모집 안내
 - 신청서는 김성하 가브리엘에게 (sunghakim7@gmail.com)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.
 - 면접일시: 10월 11일 주일미사 후
 - 면접장소: Parish Center 내 본당신부 집무실
- ◆ 첫 영성체 어린이 첫 고해 안내
 - 일시: 9/27(일) 주일미사 시작 20분 전
 - 장소: Holy Family church 내 고해실

- ◆ 연례회 첫 모임 안내
 - 일시: 9/20(일) 주일미사 후
 - 장소: Parish Center
- ◆ 구역 협의회 구역장 모임안내
 - 일시: 9/27 (일) 미사 후
 - 장소: Parish Center
- ◆ 성모회 모임
 - 일시: 9월 27일 주일미사 후
 - 장소: Parish Center
- ◆ 친교 준비 및 정리 봉사자
 - 9월 20일: 이도근
 - 9월 친교 후 정리봉사: 정하상 구역
- ◆ 2009년 BAA (Bishop's Annual Appeal)에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 - BAA 모금은 콜럼버스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 이루어지며, 모금액은 주교님께서 정하시는 가톨릭 교육 사업, 성소 개발, 사정이 어려운 단체나 본당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.
 - 올해 우리 공동체의 목표금액은 \$5,700이며, 지난주까지 모금액은 \$4,430입니다.
 - 참여하실 분은 재무위원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,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◆ 성모회에서 롯데 상품권을 판매합니다.
판매금액의 10%가 성모회 기금으로 모입니다.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.

주보문의: 김성하 가브리엘 (sunghakim7@gmail.com)

지난주 우리들의 정성

주 일 헌 금	\$579.00
교 무 금	\$1,050.00
BAA	\$200.00
감 사 헌 금	\$50.00

- 교무금: 최준표, 사윤진, 문창민, 조주현
한석철, 이수정, 양희진
- BAA: 강진광, 사윤진
- 감사: 선종현



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

St. Andrew Kim Taegon Korean Catholic Community

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 September 20, 2009



< 명동대성당 중앙문 >

최의순(1934~), 1985-1987년 제작(2009년 설치), 청동(Bronze), 110x250x9cm, 서울

“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”

오늘의 전례

제 1 독서 지혜서 3,1-9
 “하느님께서는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.”

화답송



제 2 독서 로마서 8,31-39
 “죽음도, 삶도,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.”

복음환호송 ◎ 알렐루야
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,
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. ◎

복음 루카 9,23-26
 “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.”



공동체를 위한 묵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

- 지향1) 공동체 자체 건을 마련을 위한 지향
- 지향2) 공동체 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
- 지향3) 공동체 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

구역	지난 주일	합계
김제준	단 명	5,923단 34명
이호영	295단 3명	24,629단 172명
정하상	단 명	3,485단 77명
황석두	단 명	7,460단 78명
김효임	단 명	1,171단 29명
기타	단 명	130단 3명
미사중	단 명	12,109단 10,315명
	295단 3명	2/22/04 - 9/13/09 (289주)

♣ 총누계: 219,617단 12,807명
 묵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.



봉사자 안내

	9월 20일	9월 27일
해설자	서경환	박귀영
독서/봉헌	황석두 구역	김제준 구역
보편지향 기도	십자가의 모후	평화의 모후

오늘의 성가

♫ 입당: 283 ♪ 봉헌: 221
 ♫ 성체: 181, 197 ♪ 파견: 286

그 이름도 찬란한 순교자들이시여!

안병철 베드로 신부 | 서울대학교 사무처장

금년은 피비린내 나는 박해가 자행되었던 순교의 현장이 이 땅에서 103위 시성식이 거행된 지 만 25년이 되는 감격스러운 해입니다. 특별히 이 땅에 사는 가톨릭 신자인 우리 모두는 박한 감격과 환희를 안겨주었던 그날의 감동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.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은 참으로 행복한 날입니다.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경사스러운 날입니다.

25년 전 시성 되신 103위 성인들은 말로는 차마 표현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집요한 회유와 모진 박해의 순간들을 이겨내신 분들입니다. 그분들은 결코 불의와 타협하거나 정치적 압박에 굴하는 일 없이 당당하게 믿는 바를 고백하며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. 진리를 위해 목숨까지도 흔쾌히 내어놓는 위대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. “죽음도, 삶도, 천사도, 권세도, 현재의 것도, 미래의 것도, 권능도, 저 높은 곳도, 저 깊은 곳도, 그 밖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습니다.” (로마 8,38-39) 라고 진솔한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그렇게 사셨습니다. 그러기에 그분들은 ‘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,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기에 드높이 올려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신 그리스도처럼’(필리 2,8-9 참조) 지금 영광의 자리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.

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신앙을 절대적 가치로 여기고 그 가치를 위해 온 삶을 투신한 분들이 오늘 우리가 기리는 순교 성인들입니다. 그분들의 위대한 삶을 뒤따르는 것이 후손들인 우리 모두가 실천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삶임에는 틀림없습니다. 하지만 우리는 선조들이 사셨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. 우리는 물질적인 가치가 마치 절대 가치인 양 여겨지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.

그러기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싸워나가야 할 적은 선조들이 겪었던 박해라는 물리적인 고통이 아닙니다. 오히려 장미빛으로 위장된 갖가지 물질적인 유혹들입니다. 다양한 형태로 유혹의 범위와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 오늘날이라는 현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근원적인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근원적인 선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내면적인 투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. 그 치열한 싸움의 순간이 우리에게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.

절대 가치를 살아가기 위해 내려야 할 선택의 순간은 어떤 이유에서든 미루어져서는 안 됩니다. 오늘의 복음이 가르치는 바가 그 점입니다. 그러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위선과 가식의 탈을 뒤집어쓴 채 자기 기만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선조들의 삶을 본받기 위해 진정성이 담겨 있는 당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?

선택은 이제 우리 모두의 몫이고 선택의 순간 역시 지금이라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.

